

민간 우주시대 개막... 한화, 새로운 우주산업 알린다

29일 '우주의 조약들 오픈 컨퍼런스' 과학·교육·산업·인문 전문가 참여 오는 15일까지 참가신청 받아

한화그룹이 우주인재 육성의 저변을 넓히고 민간 우주산업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공개 컨퍼런스를 연다. 한화그룹은 오는 29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우주의 조약들 오픈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우주의 조약들'은 한화그룹과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5년째 운영하는 청소년 우주인재 육성 프로그램이다. 매년 중학생 30여명을 선발해 우주과학 교육과 전문가 강연, 진로 탐색 기회 등을 제공해왔다.

올해는 처음으로 일반대중이 참여하는



한화그룹 '우주의 조약들' 오픈 컨퍼런스 'Space, with us' 포스터. /한화그룹

행사로 확대한다. 스페이스X의 재사용 발사체를 계기로 민간 우주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우주를 새로운 기회이자 산업의 영역으로 알리기 위해서다.

컨퍼런스에는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를 비롯해 전은지 KAIST 항공우주공학과 교수, 조승연 작가, 천문학자 지용배, 정의훈 산업 애널리스트 등이 연사로 참여한다. 과학과 교육, 산업, 인문 등 다양한 관점에서 우주산업의 변화와 가능성을 대중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할 예정이다.

참가 신청은 이날부터 오는 15일까지 공식 신청 페이지에서 받는다. 구체적인 일정과 프로그램도 해당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계 우주산업은 정부 주도에서 민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발사체와 위성 제작·운용을 연계하는 통합 역량이 중요해지고 AI와의 결합도 빨라지면서 글로벌 우주기업의 대형화와 사업 통합이 이

어지는 추세다.

한화그룹은 이러한 흐름에 대응해 2040년까지 우주항공과 AI 분야에 총 55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독자 발사체와 위성망, 국방 AI를 아우르는 통합 우주 인프라를 구축하고 우주항공 분야의 사업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최근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지분을 14%대로 늘리고 보유 목적을 '경영 참여'로 변경했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한국판 스페이스X는 결국 사람에게서 나온다"는 믿음으로 우주의 조약들을 5년째 이어왔다"며 "우주를 향한 꿈을 가진 다음 세대가 성장해야 대한민국에서도 스페이스X와 같은 우주기업이 탄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중기중앙회 '노란우산 가입 프로모션'

중소기업중앙회가 8월 한 달간 '노란우산 온라인 가입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3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이번 프로모션을 통해 소기업·소상공인 대표가 이달 31일까지 노란우산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을 통해 신규가입 시 네이버페이 또는 카카오페이 모바일 5만원 쿠폰을 받을 수 있다. /중기중앙회



SK인텔릭스, 나무엑스 신규 광고 선포

SK인텔릭스가 웰니스 로봇 '나무엑스(NAM UHX)'와 함께하는 일상을 담은 신규 광고를 공개했다. 3일 SK인텔릭스에 따르면 '로봇과사는 시대'를 주제로 제작한 이번 광고는 웰니스 로봇 나무엑스가 일상 속 다양한 순간에 새로운 일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모습을 담았다. /SK인텔릭스



GC녹십자웰빙, 비만질환 영양치료 논의

GC녹십자웰빙은 지난달 25일 조선팰리스 서울 강남 호텔에서 '실제 비만 진료 현장에서 영양치료의 최적 활용 가이드: 임상 적용 경험'을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실제 임상 경험, 체지방 감량을 위한 구체적인 요법 등에 대한 토론이 펼쳐졌다. /GC녹십자웰빙



한화, 건설현장에 팔빙수·수박화채 제공

한화 건설부문은 지난달 15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전국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서머 세이프티(Summer Safety) 푸드트럭' 행사를 진행한다. 현장 작업자들이 안전하게 여름을 나며 일 수 있도록 팔빙수와 수박화채를 제공한다. /한화 건설부문



KB국민은행-키페어, 양자내성암호 연구

KB국민은행은 지난달 31일 양자내성암호(PQC) 전문기업 키페어와 '양자컴퓨팅 시대에 대비한 보안 기술 공동 연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왼쪽부터)이창근 (키페어 대표이사)와 이재용 KB국민은행 정보보호본부 상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B국민은행



KT온마루에 찾아온 관람객이 KT 스포츠 팝업 전시를 관람하고 있다. /KT

광화문서 'KT 스포츠 구단' 역사 한눈에

KT, 'KT 스포츠 팝업 전시' 운영 AI 활용 킬링 제작 프로그램도

KT는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KT 스포츠 팝업 전시'를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KT 스포츠 구단의 역사를 돌아볼 수 있는 아이템과 체험 프로그램을 결합한 고객 참여형 공간으로 구성했다. KT 스포츠 구단은 프로야구 KT 위즈, 프로농구 KT 소닉붐, e스포츠KT 롤스터 등이 있다.

관람객들은KT 스포츠 구단과 선수들에게 응원 메시지를 남길 수 있다. 작성된 메시지는 대형 LED 월을 통해 실시간으로 송출된다. KT 위즈와KT 소닉붐 선수 포토존도 운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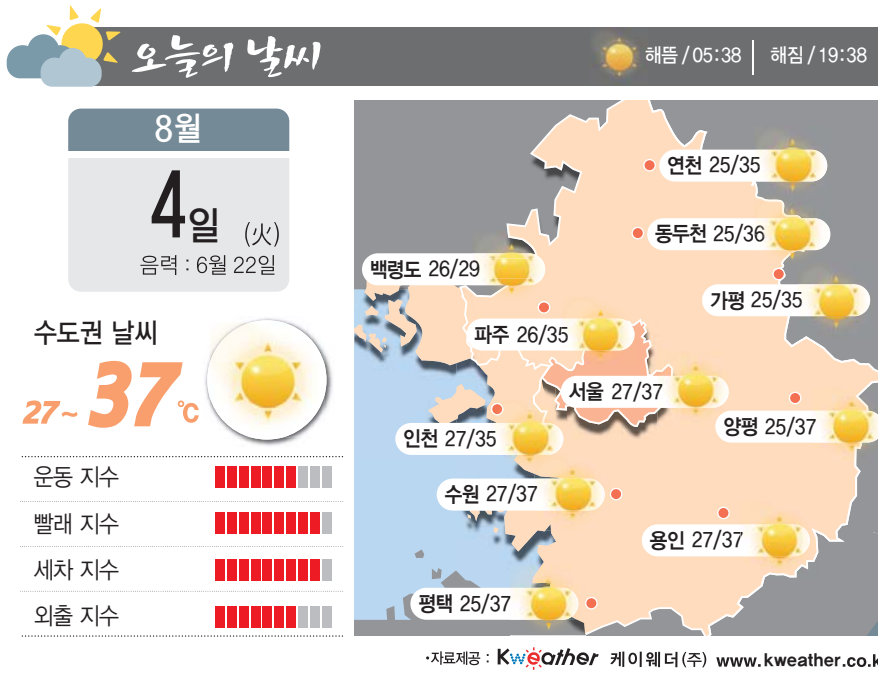
또 구단별 주요 역사와 우승 순간을 담은 헤리티지 갤러리, 공식 유니폼과 응원 굿즈 전시, 인공지능(AI)으로 복원한 응원 영상, KT 롤스터 선수들의e스포츠몰 품 전시 등 다양한 콘텐츠도 마련했다.

AI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도 있다. 관람객이 사진을 촬영하면 로봇이 캐리커처를 그려주는 AX 로봇 드로잉 공간을 운영한다. AI 기능을 활용해 KT 스포츠 응원 인증사진을 촬영하는 AX 포토 어시스트와 KT 스포츠 구단 응원용 외판 킬링을 직접 제작하는 스포츠 커스텀 DIY 프로그램도 있다.

전시 기념 이벤트도 연다. 전시 관련 쿠키에 참여하거나 개인 SNS에 관람 후기를 남긴 방문객은 추첨을 통해 친환경 에코백, 우드 액자 등 기념품을 증정한다.

전시는 KT광화문빌딩 웨스트 2층 온마루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하며 관람료는 무료다.

KT 홍보실 김동훈 전무는 "KT 스포츠 팝업 전시는 스포츠와 AI 기술을 결합해 고객들이KT 스포츠의 역사와 응원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체험형 콘텐츠를 통해 고객과의 접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민선 기자 msjo@



강경선 교수, 강스템바이오텍 CSO 취임

글로벌 기술이전 전략 강화

강스템바이오텍은 창업자이자 기술고문인 강경선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사진)를 최고과학책임자(CSO)로 선임했다고 3일 밝혔다.

강스템바이오텍은 줄기세포치료제의 개발 및 제조를 전문으로 하는 바이오 제약사다. ▲골관절염 치료제 오스카(OSC A)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피부 오가노이드 등을 파이프라인으로, 혁신 바이오의약품의 임상 개발과 글로벌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강경선 CSO는 2010년 강스템바이오텍을 창업해 2015년 코스닥 상장을 이끌었다. 최근에는 피부·모낭 오가노이드 플랫폼 연구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연구



개발 우수성과30선'에 선정되는 등 줄기세포·재생의학 분야에서 꾸준히 연구 역량을 입증해 왔다. 강 CSO는 이러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향후 R&D, 임상 개발 전략, 파이프라인 기획, 오가노이드 플랫폼 고도화 등 연구개발 전반을 총괄하며 회사의 중장기 기술 비전을 수립할 예정이다.

강 CSO 취임을 계기로 강스템바이오텍은 'Science Driven Company' 체계를 구축하고, 글로벌 기술이전을 겨냥한 파이프라인 전략을 강화한다. 특히 최근 임상 2a상에서 통증 완화 및 연골 구조 개선 데이터를 확보한 오스카와 오가노이드 기반 신약평가 플랫폼의 사업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수정 수습기자 kcrystal@

영유아 발달 점검부터 전문기관 연계까지

삼성복지재단 '새싹과단비' 플랫폼

삼성복지재단이 영유아의 발달 상태를 점검하고 맞춤형 지원 정보까지 한 번에 제공하는 통합 플랫폼을 선보였다. 부모와 교사가 아이의 발달 수준을 쉽게 확인하고 필요한 놀이 콘텐츠와 전문기관 정보를 연계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삼성복지재단은 육아정책연구소와 함께 영유아 발달지원 플랫폼 '새싹과단비'를 오픈했다고 3일 밝혔다.

'새싹과단비'는 영유아 발달 체크를 비롯해 시기별 발달 정보, 맞춤형 발달지원 놀이, 지역별 전문기관 정보를 한곳에서 제공하는 원스톱 플랫폼이다. 부모와 교사가 아이의 발달 수준을 이해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플랫폼 구축에는 최근 늘어나는 발달

지연 영유아에 대한 사회적 대응 필요성이 반영됐다.

육아정책연구소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K-DST) 결과 '추적점사요망' 판정을 받은 영유아 비율은 2012년 2.1%에서 2023년 12.3%로 증가했으며, '심화평가권고' 비율도 0.9%에서 3.3%로 늘었다.

삼성복지재단은 부모와 교사가 검사 결과 이후에도 적절한 정보를 얻고 전문기관과 연계할 수 있도록 육아정책연구소와 약 2년간 플랫폼을 공동 구축했다.

플랫폼에서는 육아정책연구소가 개발한 영유아 발달체크 도구(K-SIED)를 무료로 제공한다. 결과에 따라 가정과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발달지원 놀이 콘텐츠와 지역별 전문기관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차현정 기자 hyeon@

인사 ◆행정안전부 ◇과장급 정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기획전략과장 양창영 ◆국가데이터처 ◇과장급 정보 ▲산업동향과장 정선경 ▲가계수지동향과장 박순욱 ▲표본과장 최재혁 ▲국가데이터혁신과장 이철희 ◆행정통계과장 송주화 ▲호남지방데이터청 지역통계과장 백종립

부음 ▲김충홍씨 별세, 이경심씨 남편상, 김혜경 김혜량 김미라씨 부친상, 양대수 김재선 이상원씨 장인상, 강희정씨 시부상, 김승현(매일경제 사회부 기자) 김지우씨 조부상, 양재용 양석진 김승원 이유현 이유건씨 외조부상=3일 동광양장례식장, 발인 4일 오전 8시. 061-795-7700